■민족문화연구 제100호(2023.08.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243-266.
http://doi.org/10.17948/kcs.2023..100.243

『삼국유사』「흥법」편의 구성적 의미

정천구(丁天求)*

목 차

1. 머리말
2. 「흥법」편의 글쓰기 특성
3. 흥법의 주체와 그 의미
4. 「흥법」편의 구성적 의미
5. 맺음말

국문초록

『삼국유사』는 편목 구성이 복합적인데, 그 복합성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고리는 「흥법(興法)」편이다. 「흥법」은 삼국에서 불법이 일어난 일을 다룬다고 개괄할 수 있으나, '흥법'의 의미는 단순하지 않다. 특히, 『삼국유사』 전체의 구성에서 보자면 왜 「흥법」이 「기이(紀異)」와 「탑상(塔像)」 사이에 배치되었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흥법」편의 글쓰기를 분석해 '흥법'의 주체와 그 의미를 밝히고 나아가 「흥법」의 구성적 의미에 대해 논의한다. 이로써 『삼국유사』 전체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흥법」편에 실린 여섯 조목의 글쓰기를 분석해 보면, 서사의 주역이 고승이 아니라 제왕이라는 점이 두드러진다. 인용 문헌 또한 주로 기전체 역사서인 『삼국사기』의 '본기(本紀)'이며, 고승에 관한 서사에서도 고승전을 인용하지 않았다. 이는 「흥법」편이 결코 승전이 아님을 말해준다. 인물보다 흥법이라는 사건에 초점을 맞춘 셈인데, 이로 말미암아 흥법의 주역이 누구인가가 새삼 중요해졌다. 흥법에서는 고승들 못지않게 제왕의 비중이 높다. 실제로 고승은 흥법의 필요조건이라 할 전법에서 긴요한 역할을 했을 뿐이며, 흥법은 제왕에 의해서 완성되었다. 이는 고승과 제왕이 흥법에서 대등한 역할을 했음을, 흥법이 단순한 불교사가 아니라 정치사이기도 함을 의미한다.

* 부산대 한문학과 강사.

「흥법」의 글쓰기는 흥법에서 고승과 제왕, 불교와 유교가 대등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종교사와 정치사를 아우르고 있다. 이것이 「기이」와 「탑상」 사이에 놓인 이유였다. 즉, 제왕 중심의 세속 정치사를 서술한 「기이」와, 순전히 불교사의 기원과 전개를 서술한 「탑상」 사이에서 둘의 가교 구실을 하고 있다. 일연은 「흥법」을 통해 정치사와 종교사가 별개의 것이 아님을, 둘은 서로 얽혀 있음을 말하려 했다. 그것이 실제 역사였음에도 『삼국사기』처럼 유교의 역사서들은 불교사를 대부분 배제했고, 『해동고승전』처럼 불교사서들은 고승 중심의 불교사만을 기술했다. 「흥법」은 그런 왜곡과 편향을 시정하려는 의도에서 「기이」와 「탑상」 사이에 배치되었다.

주제어: 흥법, 전법, 글쓰기, 구성, 고승, 제왕, 대등.

1. 머리말

일연(一然, 1206~1289)은 『삼국유사』를 저술하면서 「왕력(王曆)」, 「기이(紀異)」, 「흥법(興法)」, 「탑상(塔像)」, 「의해(義解)」, 「신주(神呪)」, 「감통(感通)」, 「피은(避隱)」, 「효선(孝善)」 등 모두 아홉 편으로 틀을 짰다. 크게는 기전체(紀傳體)의 형식을 따르고 작게는 고승전의 십과(十科)를 차용한 체재로 보인다.[1] 일연이 이 독특하고 복합적인 체재로써 말하려 한 바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해명되지 못했는데, 그것은 『삼국유사』의 구성적 특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삼국유사』의 복합적 구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흥법」편이 핵심적인 고리라 여겨 「흥법」의 글쓰기 특성을 분석하고 '흥법'의 의미를 밝힘으로써 「흥법」이 『삼국유사』 전체에서 갖는 구성적 의미에 대해 논의하려 한다.

「흥법」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 배치가 독특하다는 데 있다. 대체로 「흥법」은 「탑상」 이하의 편목들과 하나로 묶여서 이해되며,[2] 「의해」나 「신주」처럼

1) 고익진은 "『三國遺事』의 編目 조직은 『三國史記』의 紀傳體的 체제를 기본으로 삼아 '1왕력'·'2기이'·'4탑상'편을 만들고, 그 '열전'편의 내용을 다시 여러 高僧傳의 科目에 의해 增廣했다고 말할 수가 있다"(「三國遺事撰述考」, 『한국찬술불서의 연구』, 민족사, 1987, 141면)고 했으며, 김두진은 "『삼국유사』의 편목은 9개로 구성되었지만 크게 보아 역사의 기술인 왕력·기이편과 불교신앙사인 나머지 7편목으로 나뉠 수 있다"(「三國遺事의 體制와 내용」, 『한국학논총』 23,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00, 10면)고 하면서 '역사·승전류'로 정의했다.

'승전(僧傳)'으로 분류되기도 한다.[3] 고익진은 「흥법」을 『해동고승전』의 「유통(流通)」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했다.[4] 이러한 견해들은 열전으로 분류되는 「흥법」과 「의해」 사이에 그 성격이 다른 「탑상」이 놓인 까닭, 즉 「흥법」이 「의해」와 떨어진 채 「탑상」 앞에 배치된 경위를 설명해주지 못한다.[5] 따라서 『삼국유사』의 구성적 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 문제부터 해명할 필요가 있다.

「탑상」은 제목 그대로 불탑과 불상이라는 사물에 관한 편목이고, 「의해」는 중국 고승전의 십과에도 보이는 그대로 고승의 전기들을 실은 편목이다.[6] 그렇다면, 「흥법」은 그 둘과 다를 공산이 크다고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흥법」편의 각 조목들이 어떤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는지 그 글쓰기 특성부터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 「흥법」에는 모두 일곱 조목이 있는데, 마지막 〈동경흥륜사금당십성(東京興輪寺金堂十聖)〉을 제외한 나머지 여섯 조목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그 대체적인 성격을 먼저 파악할 것이다.[7]

사실, 「흥법」편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었다. 김영태는 '전법(傳法)'의 역사적 사실을 서술한 것으로 보았고,[8] 김두진은 "삼국에 불교가 전래되어 공인되는 과정 및 불교의 흥기에 대해 기술하였다"고 했으며,[9] 고영섭 또한 삼국의 불법이 일어난 인연에 대해 기술한 편목이라고 했다.[10] 그런데 이들 연구 모두 흥법과 전법의 의미를 구분하지 않고 거의 동일하게 보았는데,

---

2) 「흥법」과 「탑상」을 함께 고찰한 이강엽, 「『삼국유사』 「興法」·「塔像」 篇의 脫神話化 전략」, 『어문학』 110, 한국어문학회, 2010과 고영섭, 「『삼국유사』 「흥법」과 「탑상」의 성격과 특징」,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35,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14는 이런 입장을 잘 보여준다.

3) 김두진이 「흥법」 이하 일곱 편목을 '승전류'라 한 견해(앞의 글, 9-10면)가 대표적이다.

4) 고익진, 앞의 글, 142면.

5) 고익진은 「탑상」을 기전체의 지(志)에 해당하는 것(앞의 글, 141-143면)으로 보았는데, 왜 「흥법」과 「의해」 사이에 놓였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6) 중국 고승전의 십과에 대해서는 정천구, 「중국 고승전의 체재 변화와 그 의미」, 『대순사상논총』 43, 대순사상학술원, 179-209면 참조.

7) 〈동경흥륜사금당십성〉은 "동쪽 벽에 서쪽을 향해 앉은 소상은 아도, 염촉, 혜숙, 안함, 의상이다. 서쪽 벽에 동쪽을 향해 앉은 소상은 표훈, 사파, 원효, 혜공, 자장이다"(東壁坐庚向泥塑: 我道, 厭髑, 惠宿, 安含, 義湘. 西壁坐甲向泥塑: 表訓, 蛇巴, 元曉, 惠空, 慈藏)라고 고승 열 명의 법명을 나열하고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분석에서는 제외한다.

8) 김영태, 「三國遺事 興法편의 三國傳法史實 考」, 『불교학보』 29, 불교문화연구원, 1992, 551-553면.

9) 김두진, 앞의 글, 19-20면.

10) 고영섭, 앞의 글, 6면.

그것이 「흥법」편의 성격을 더욱 불분명하게 만들었다. 두 용어는 의미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그 주체가 누구냐에서도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다. 가령, 전법은 "불법을 전한다"는 뜻으로, 그 주체가 승려일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불법을 일으키다"는 뜻의 흥법은 주체가 반드시 승려일 필요가 없다. 「흥법」편의 〈원종흥법염촉멸신(原宗興法厭髑滅身)〉에서는 원종 곧 법흥왕이 흥법의 주체로 명시되어 있다. 이는 흥법의 주체와 그 의미가 단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렇게 흥법의 주체가 누구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가 드러나면, 「흥법」편의 구성적 의미도 명확해질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마지막에 왜 「흥법」이 「기이」와 「탑상」 사이에 배치되었는지를 논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일연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도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생각한다.

2. 「흥법」편의 글쓰기 특성

여기서 분석할 여섯 조목은 〈순도조려(順道肇麗)〉, 〈난타벽제(難陀闢濟)〉, 〈아도기라(阿道基羅)〉, 〈원종흥법염촉멸신〉, 〈법왕금살(法王禁殺)〉, 〈보장봉로보덕이암(寶藏奉老普德移庵)〉 등이다. 드러난 제목만 보면, 앞의 세 조목에서는 고승들이, 뒤의 세 조목에서는 제왕들이 주인공이다. 내용으로 보자면, 앞의 네 조목은 삼국에서 불법이 공인되는 과정을 다루고, 뒤의 두 조목은 그 이후의 일을 다룬다. 특히, 〈보장봉로보덕이암〉은 고구려의 멸망을 불법과 관련해서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여섯 조목이지만, 글쓰기에서 공유하는 점을 찾아낸다면 그 성격을 쉽사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첫 번째 조목인 〈순도조려〉를 대표적인 사례로 삼아 글쓰기 방식을 분석하고 다른 조목들을 아울러 논의하기로 한다. 〈순도조려〉의 전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는 원문에 붙은 주석이다.)

① 「고구려본기」에 나온다. 소수림왕 즉위 2년 임신년(372)은 곧 동진의 함안 2년으로, 효무제가 즉위한 해다. 전진의 부견이 사신과 승려 순도를 시켜 불상과

경문을 보냈다.[이때 부견은 관중에 도읍했으니, 곧 장안이다.] 또 4년 갑술년(374)에 아도가 동진에서 왔다. 이듬해 을해년(375) 2월에 초문사를 지어 순도를 머물게 하고 또 이불란사를 지어 아도를 머물게 했는데, 이것이 고구려 불법의 시작이다.
② 『승전』에서는 순도와 아도가 북위(北魏)에서 왔다고 썼는데, 잘못이다. 사실은 전진에서 왔다. 또 초문사는 지금의 흥국사이며 이불란사는 지금의 흥복사라 한 것도 잘못이다. 살펴보면, 고구려 때의 도읍은 안시성으로, 다른 이름은 안정홀이며 요수의 북쪽에 있었다. 요수는 다른 이름이 압록인데, 지금의 안민강을 이른다. 어찌 송경의 흥국사 이름이 여기에 있을 수 있겠는가?
③ 기린다. 압록강 봄은 깊어 물가의 풀 곱고, 모래밭 갈매기는 한가하게 조누나. 문득 노 젓는 소리 멀리서 깨우고, 어느 곳 고깃배가 손님 싣고 오나?[11]

위에서 ①은 소수림왕 때 순도와 아도가 고구려에 왔고 그들을 위해 절을 지으면서 고구려의 불법이 시작되었다는 내용으로, 간단하지만 서사에 해당한다. ②는 『승전』의 기록이 잘못되었다며 사실을 따져 논한 부분인데, 논증에 해당한다. ③은 칠언절구의 찬시(讚詩)로서, ①의 서사에 대한 저자의 감상평이다. 이렇게 〈순도조려〉는 '서사 → 논증 → 찬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구성 요소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①의 서사는 '고려본기(高麗本記)'에서 인용한 것이다. 『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의 〈소수림왕〉 2년조와 4년조, 5년조 기사와 일치한다. 그런데 제목에 '순도'를 내걸었음에도 『해동고승전』에 실려 있는 순도의 전기는 배제한 채 『삼국사기』의 본기(本紀)에서 인용했다. 본기는 제왕의 역사를 기록한 부분이고, ①에서 볼 수 있듯이 사건 중심으로 서술된다. 이는 ①의 서사가 승전(僧傳)과는 거리가 있음을 말해주는데, 다른 조목들에서도 마찬가지다.

백제에서 불법이 시작된 일을 전하는 〈난타벽제〉에서도 ①과 같이 서사가 「백제본기(百濟本記)」에서 인용된 기사로 이루어져 있다. 〈아도기라(阿道基羅)〉에서는 서사가 둘인데, 하나는 「신라본기」에서 인용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11) 『三國遺事』 권3, 〈順道肇麗〉. "① 高麗本記云: 小獸林王卽位二年壬申, 乃東晉咸安二年, 孝武帝卽位之年也. 前秦符堅遣使及僧順道送佛像經文.[時堅都關中, 卽長安.] 又四年甲戌, 阿道來自晋. 明年乙亥二月, 創肖門寺以置順道, 又創伊弗蘭寺以置阿道, 此高麗佛法之始. ② 僧傳作二道來自魏云者, 誤矣. 實自前秦而來. 又云肖門寺今興國, 伊弗蘭寺今興福, 亦誤. 按麗時都安市城, 一名安丁忽, 在遼水之北. 遼水一名鴨淥, 今云安民江, 豈有松京之興國寺名? ③ 讚曰: 鴨淥春深渚草鮮, 白沙鷗鷺等閑眠. 忽驚柔櫓一聲遠, 何處漁舟客到烟?"

〈아도본비(阿道本碑)〉를 옮겨 놓은 글이다. 「신라본기」의 기사에는 묵호자의 행적이 길게 나오고 아도는 짧게 나오므로 아도에 관한 긴 서사가 필요해서 〈아도본비〉의 내용을 더한 것이다. 〈난타벽제〉와 〈아도기라〉의 서사들은 『해동고승전』에 거의 그대로 실려 있다. 〈석마라난타(釋摩羅難陀)〉와 〈석아도(釋阿道)〉가 그것이다. 그럼에도 일연은 『해동고승전』의 전기들을 배제했다.

이처럼 순도와 마라난타, 아도 등 세 고승을 제목에 내건 조목들에서 한결같이 기전체 역사서의 본기를 중시하고 있으니, 법흥왕과 법왕, 보장왕 등 제왕을 제목에 내건 〈원종흥법염촉멸신〉, 〈법왕금살〉, 〈보장봉로보덕이암〉 등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법왕금살〉에서는 출전을 밝히지 않았으나, 『삼국사기』 권27 「백제본기」의 〈법왕〉 원년조와 2년조, 〈무왕〉 35년조 기사들이 합쳐져 서사를 이루고 있다. 〈보장봉로보덕이암〉에서는 「고려본기」에서 인용했음을 명시했다. 다만, 〈원종흥법염촉멸신〉에서는 「신라본기」의 꽤 긴 기사를 "법흥대왕 즉위 14년(527)에 소신 이차돈이 불법을 위해 몸을 던졌다"[12]라고 짤막하게 줄여 제시한 뒤에 〈촉향분예불결사문(髑香墳禮佛結社文)〉이라는 글의 내용을 주요 서사로 삼았다. 〈촉향분예불결사문〉은 염촉 곧 이차돈을 기릴 목적으로 쓴 글이다.

「흥법」편 여섯 조목에서 각 서사는 기본적으로 본기의 기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뒤의 세 조목에서는 제왕이나 그 신하가 서사의 핵심 인물이다. 이는 일연이 「흥법」에서 결코 승전(僧傳)을 지향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흥법」편에서 첫 번째 글쓰기 특성은 이것이며, 두 번째 특성은 논증이다.

〈순도조려〉의 ②를 보자. 여기에서 일연은 『승전』의 잘못된 기록 두 가지를 거론하며 시비를 따진다. 그 두 가지는 "순도와 아도가 북위에서 왔다"는 것과 "초문사는 지금의 흥국사이며 이불란사는 지금의 흥복사라 한 것"이다.[13] 일연은 지리적 정보까지 동원해 그 내용의 그릇됨을 지적했다. 이 논증에서 일연은 확실히 『승전』의 기록을 비판하고 있지만, 논증의 취지가 『승전』을 비판하는 데

12) 『三國遺事』 권3, 〈原宗興法厭髑滅身〉. "法興大王卽位十四年, 小臣異次頓爲法滅身."
13) '초문사'에 대해 『해동고승전』의 〈순도〉에서는 '성문사(省門寺)'라 하면서 후대에 와전되어 '초문사'가 되었다고 서술되어 있다. 반면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는 모두 '초문사'로 적고 있다.

있는 것은 아니다. 일연은 사실의 정확성을 따지고 있을 뿐이다. 이는 다른 조목들에서도 확인된다.

「흥법」편에서 논증이 없는 조목은 〈난타벽제〉와 〈법왕금살〉 둘뿐이다. 다만, 〈난타벽제〉에는 "마라난타는 번역하면 '동학'이 된다"[14]라는 짤막한 설명이 논증을 대신해 서사에 덧붙어 있다. 나머지 네 조목에는 모두 논증하는 글이 있으며, 위의 ②가 그 가운데서 가장 짧은 논증이다. 이제 〈아도기라〉의 경우를 통해 왜 「흥법」편에서 논증을 중시하는지 살펴 보겠다.

일연은 〈아도기라〉에서 아도에 관한 두 개의 서사, 즉 「신라본기」와 〈아도본비〉를 나란히 제시한 뒤에 서로 어긋나는 사실에 대해 길고 자세하게 논증했다. 아도의 자취가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는 점, 아도와 묵호가 동일인인지 여부, 고도녕의 예언이 정확한지 여부 등이 논증 대상이었다. 이 가운데 아도의 자취에 대한 논증은 다음과 같다.

> 양과 당 두 고승전[15] 및 삼국의 본사(本史)는 모두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 불교의 시작이 진나라 말 태원 연간이라고 기재했는데, 순도와 아도 두 법사가 소수림왕 갑술년에 고구려에 이른 것은 분명하므로 이 전은 잘못되지 않았다. 만약 비처왕 때 처음으로 신라에 이르렀다면, 이는 아도가 고구려에서 백여 년 머물렀다가 온 것이 된다. 위대한 성인의 행동과 출몰이 아무리 범상치 않다고 하지만, 반드시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게 아니라면 신라에서 불법을 받든 것이 이토록 늦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미추왕 때였다고 한다면, 고구려에 왔던 갑술년보다 도리어 백여 년이나 훨씬 앞선다. 이때는 계림에 아직 문물과 예교도 없었고 국호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느 겨를에 아도가 와서 불법을 받들자고 청했겠는가? 또 고구려에 오지 않은 채 훌쩍 넘어 신라에 이르렀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 설령 잠시 일어났다가 다시 사라졌다고 해도 어찌 그 사이에 휑하니 아무 소문도 없고 향의 이름조차 알지 못할 수 있겠는가! 어찌하여 하나는 너무 뒤지고 하나는 너무 앞서는가?[16]

---

14) 『三國遺事』 권3, 〈難陀闢濟〉. "摩羅難陁, 譯云童學."

15) 혜교(慧皎, 497~554)의 『고승전(高僧傳)』과 도선(道宣)의 『속고승전(續高僧傳)』(649년)을 각각 가리킨다.

16) 『三國遺事』 권3, 〈阿道基羅〉. "梁·唐二僧傳及三國本史, 皆載麗·濟二國佛教之始在晋末大元之間, 則二道法師以小獸林甲戌到高麗, 明矣, 此傳不誤. 若以毗處王時方始到羅, 則是阿道留高麗百餘歲乃來也. 雖大聖行止出沒不常, 未必皆爾. 抑亦新羅奉佛, 非晩甚如此. 又若在未雛之世, 則却超先於到麗甲戌百餘年矣. 于時雞林未有文物禮教, 國號猶未定, 何暇阿道來請奉佛之事? 又不合高麗未到而越至于羅也. 設使暫興還廢, 何其間寂

아도가 신라에 이른 때를 「신라본기」에서는 비처왕(479~499 재위) 때라 했고 〈아도본비〉에서는 미추왕 2년(263)이라 했다. 이 둘 사이에도 어긋남이 크지만, 앞의 〈순도조려〉에서 아도가 소수림왕 4년(374)에 고구려에 이르렀다고 한 것과도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일연은 문물과 예교, 국호 따위를 거론하거나 고구려를 거치지 않고 신라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실을 들어서 의문을 제기했다.

위의 논증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두 가지다. 우선 일연은 "위대한 성인의 행동과 출몰이 아무리 범상치 않다고 하지만, 반드시 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는 연대의 차이를 고승이나 성인이 신이한 자취를 보여준 것이라며 얼버무려서는 안 됨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해동고승전』에서 "아도나 흑호자 같은 분은 모두 형상 없는 법신을 가지고 숨었다 나타났다 함을 자유롭게 했다. 앞서기도 하고 뒤서기도 하며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서 마치 바람을 붙잡는 듯 그림자를 치는 듯 해서 그 자취를 잡아 정할 수가 없다"[17]며 종교적 신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과 대비된다. 물론 〈원종흥법염촉멸신〉에도 염촉의 신이한 죽음이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처럼 거기서도 역사적 사실에 관한 긴 논증이 덧붙어 있어 종교적 신이가 일방적으로 강화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 위의 글에 이어 아도와 묵호자가 한 사람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증했고, 고도녕이 일곱 곳의 절을 예언한 것에 대해서도 잘못된 점을 논증했는데,[18] 이 모두 맥락이 같다. 즉, 신이한 자취나 종교적 이적으로 간주되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논증함으로써 과도한 종교적 색채를 걷어내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이때는 계림에 아직 문물과 예교도 없었고 국호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느 겨를에 아도가 와서 불법을 받들자고 청했

寥無聞而尙不識香名哉! 一何大後, 一何大先?"

17) 『海東高僧傳』 권1, 〈阿道〉. "阿道出現年代前卻, 如是其差舛, 竝是古文, 不可取捨. (…) 若阿道黑胡子, 皆以無相之法身隱現自在. 或先或後, 似同似異, 若捕風搏影, 不可執跡而定也."

18) 아도와 묵호자의 정체, 아도 모친이 말한 절의 창건 순서가 어긋난 일 등에 대해서도 『해동고승전』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거나 비판하는 일 없이 그대로 따랐다. 이 또한 『삼국유사』와 『해동고승전』의 두 저자가 인식과 글쓰기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겠는가?"라는 대목이다. 이는 고승의 덕과 능력, 의지만으로는 흥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뜻이다. 즉, 정치적으로 호의적이고 문화적으로 성숙해야만 흥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또한 과도한 종교성이나 종교의 일방적 우위를 경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점은 〈원종흥법염촉멸신〉과 〈보장봉로보덕이암〉에서 펼친 논증들을 통해 뒷받침된다.

〈원종흥법염촉멸신〉에서는 염촉을 기리는 결사문을 주요 서사로 내세웠는데, 논증에서는 염촉보다 법흥왕과 진흥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말하자면, 두 제왕이 불법을 일으키고 절을 지은 일이 모두 제왕의 의지이며 정치적 조치였다는 것이다. 〈보장봉로보덕이암〉에서도 보장왕이 도교를 숭상하게 된 까닭이 모두 개소문(蓋蘇文)의 정치적 모략이었다는 점을 논증하고 있다. 이 논증은 보덕 화상의 뛰어난 덕과 능력으로도 불교의 위축을 초래할 정치적 조치를 바꾸지 못했다는 서사와 호응된다. 이렇게 두 논증은 불법의 흥성과 쇠퇴가 모두 정치사와 긴밀하게 얽혀 있음을 드러내 보여준다.

각 조목들의 서사에서 기전체 역사서의 본기가 중시된 까닭이 논증의 성격을 통해 한층 분명해진다. 그것은 흥법을 종교적 사건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흥법은 정치적 사건이면서 종교적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서사에서 본기를 중시했고 논증을 더한 것이다. 이것이 「흥법」편의 글쓰기가 보여주는 주요한 특성이다. 물론 여섯 조목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찬시들도 이런 특성을 공유한다.

③을 보자. 첫 두 줄의 "압록강 봄은 깊어 물가의 풀 곱고, 모래밭 갈매기는 한가하게 조누나"는 고구려에 불교가 전래되기 전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고, "문득 노 젓는 소리 멀리서 깨우고, 어느 곳 고깃배가 손님 싣고 오나?"라는 뒤의 두 줄은 순도가 고구려에 들어오는 과정을 묘사한 것이다. 여기서 '손님'은 당연히 순도를 가리킨다. '찬(讚)'을 인물의 뛰어난 면을 기린다는 뜻으로만 풀이하면, 이 찬시는 좀 미흡하다. 왜냐하면, 순도는 불법의 전래가 아니라 고구려에 온 일로 찬미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사의 내용과는 일치한다. 이런 면은 다른 찬시들에서도 마찬가지다.

〈난타벽제〉의 찬시는 이렇다. "천지가 처음 열리던 어둑한 때엔, 대체로

솜씨 부리기가 어렵다네. 늙은이는 스스로 알고 노래와 춤으로, 옆 사람 끌어들여 눈으로 보게 했네."[19] 여기서도 처음 두 줄은 백제의 흥법이 결코 쉽지 않았던 상황과 관련된다. 뒤의 두 줄에서는 마라난타를 '늙은이'로, 침류왕을 '옆 사람'으로 비유하면서 마라난타와 침류왕의 합작으로 백제의 불법이 시작된 사실을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다. 서사의 내용과 일치한다.

사실, 찬(讚)을 『소이아(小爾雅)』의 「광고(廣詁)」에서는 "밝히다"(明也)로, 『방언(方言)』에서는 "풀어내다"(解也)로, 『석명(釋名)』에서는 "기록하다, 간략하게 기록하다"(錄也, 省錄之也)로 풀이하고 있다.[20] 〈순도조려〉와 〈난타벽제〉의 찬시를 보면, 일연도 찬을 이렇게 폭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찬시들의 내용에 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므로 여기서는 더 다루지 않겠다. 다만, 찬시가 서사의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종교적으로 윤색하지 않고 사실을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어 앞의 서사 및 논증과 그 성격이 서로 통한다는 점만 짚어 두겠다.

3. 흥법의 주체와 그 의미

앞선 논의에서 드러났듯이 「흥법」편은 결코 승전(僧傳)을 지향하지 않았으며 제왕만을 중심으로 하지도 않았다. 각 조목에 덧붙은 찬시들 또한 고승을 기리기도 하고 제왕을 드높이기도 했다. 고승이나 제왕 어느 한쪽만을 중시한 글쓰기가 결코 아니었다는 방증이다. 이는 결국 인물 중심의 글쓰기가 아닌 사건 중심의 글쓰기였다는 뜻이다. 바로 흥법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글쓰기의 핵심이었다. 그런데 흥법과 관련해서 서사에 못지않게 논증과 설명의 비중도 높았다. 이는 흥법의 의미가 단순하지 않음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이 점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흥법의 주체는 누구인지부터 살펴보겠다.

비록 「흥법」편이 승전을 지향하지는 않았더라도 고승이 흥법에서 주요한

19) 『三國遺事』 권3, 〈難陀闢濟〉. "天造從來草昧間, 大都爲伎也應難. 翁翁自解呈歌舞, 引得旁人借眼看."
20) 『소이아』는 중국 고대의 사전이고, 『방언』은 서한(西漢)의 양웅(揚雄)이 저술한 언어학 서적이며, 『석명』은 동한(東漢) 때 유희(劉熙)가 편찬한 훈고서(訓詁書)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은 諸橋轍次, 『大漢和辭典』 권10, 大修館書店, 1971, 626면을 참조한 것이다.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다만, 흥법의 주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순도조려〉에서 순도와 아도 등이 고구려에 왔으나, 그것만으로 고구려의 불법이 시작된 것이 아니다. 서사에서 그들의 역할은 확실히 전법(傳法) 곧 "불법을 전하는 일"로 한정된다. 왕명으로 초문사와 이불란사를 지어 두 승려를 머물게 함으로써 비로소 불법이 시작되거나 흥법이 이루어진 것이다. 일연의 이런 인식은 〈난타벽제〉에서 한층 명확하게 드러난다.

> 「백제본기」에 나온다. ① 제15대[『승전』에서는 14대라 했는데, 잘못이다.] 침류왕 즉위 갑신년(384)[동진 효무제 태원 9년]에 호승 마라난타가 동진에서 오니 궁중으로 맞아들여 예로써 공경했다. ② 이듬해 을유년(385)에 새 도읍인 한산주에 절을 세우고 승려 열 명을 허가했으니, 이것이 백제 불법의 시작이다. ③ 또 아신왕이 즉위한 태원 17년(392) 2월, 불법을 숭상하고 믿으며 복을 구하라는 교서를 내렸다.[21]

위의 글은 「백제본기」에서 〈침류왕(枕流王)〉조와 〈아신왕(阿莘王)〉조의 기사를 인용한 것이다. 그런데 『삼국사기』와 비교해 보면, 두 가지가 다르다. 첫째는 ②의 "이것이 백제 불교의 시작이다"라는 구절이 『삼국사기』의 〈침류왕〉에서는 ①의 뒤에 나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삼국사기』에서는 "불법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佛法始於此)로 되어 있어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이 구절이 ②가 아닌 ①의 뒤에 놓여 있다.[22] 이런 차이는 간과되기 쉬우나, 「흥법」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삼국사기』의 〈침류왕〉 기사는 마라난타가 백제에 온 일만으로 흥법이 이루어졌다고 본 것이고, 〈난타벽제〉는 침류왕의 사찰 창건과 승려의 출가 허용이 더해짐으로써 흥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23]

---

21) 『三國遺事』 권3, 〈難陀闢濟〉. "第十五[僧傳云十四, 誤.]枕流王卽位甲申[東晋孝武帝大元九年], 胡僧摩羅難陁自晋, 迎置宮中禮敬. 明年乙酉, 創佛寺於新都漢山州, 度僧十人, 此百濟佛法之始. 又阿莘王卽位大元十七年二月, 下敎崇信佛法求福."

22) 『三國史記』 권24, 〈枕流王〉. "九月, 胡僧摩羅難陁自晉至, 王迎之, 致宮內禮敬焉. 佛法始於此."

23) 『해동고승전』의 〈마라난타〉는 〈난타벽제〉보다 훨씬 긴데, 해당 대목만 제시하면 이렇다. "當百濟第十四枕流王卽位元年九月, 從晋乃來, 王出郊迎之, 邀致宮中, 敬奉供養, 稟受其說. 上好下化, 大弘佛事, 共贊奉行, 如置郵而傳命. 二年春刱寺於漢山, 度僧十人, 尊法師故也. 由是百濟, 次高麗而興佛敎焉." 여기에서는 왕이 마라난타를 맞아들인 뒤에 설법을 들었고 상층 사람들이 좋아하니 하층 사람들도 교화되어 불사를 크게 일으켰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리고 이듬해에 절을 세우고 승려들을 출가시킨 일에

이는 두 번째 차이와도 관련이 있다.

위의 ③은 아신왕이 불법의 숭상을 적극 권장하는 교서를 내렸다는 내용이다. 백제에서 불법이 공인된 지 7년만에, 더구나 아신왕이 즉위하자마자 이런 교서를 내렸다는 것은 흥법의 필요성이 컸다는 뜻이면서 흥법에 대한 왕의 의지가 대단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삼국사기』의 〈아신왕〉에는 이 기사가 나오지 않는다.[24] 이것이 두 번째 차이다. 실제로 이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고, 『삼국사기』의 저자가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난타벽제〉에는 이 내용이 서술되어 있으며 앞의 ②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흥법에서 제왕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로써 〈순도조려〉와도 일맥상통해진다.

〈난타벽제〉가 『삼국사기』의 기사와 다르게 편집된 점은 순전히 일연의 의도에 따른 것이다. 이 점은 〈법왕금살〉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법왕금살〉에는 백제의 법왕이 살생을 금지하는 조칙을 내려 고기잡이나 사냥을 막고 또 왕흥사(王興寺)를 짓기 시작한 일, 이어 무왕(武王)이 왕흥사 창건을 마무리한 일이 서술되어 있다. 이 조목에 승려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법왕과 무왕만이 등장한다. 흥법에서 제왕의 역할이 특히 긴요하고 크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는 신라의 흥법에 관한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신라에서 불법이 시작되고 공인되는 과정은 〈아도기라〉와 〈원종흥법염촉멸신〉 두 조목에서 서술되고 있다. 제목에서 이미 두 조목의 주요 인물이 드러나 있는데, 〈아도기라〉에서는 고승 아도이며 〈원종흥법염촉멸신〉에서는 법흥왕과 그의 신하 염촉이다. 흥법의 주체가 누구인지, 흥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이 두 조목의 존재가 특히 잘 드러내 보여준다.

〈아도기라〉의 서사는 둘로 이루어져 있다. 「신라본기」에서 인용한 기사와 〈아도본비〉가 그것이다. 주요한 서사는 〈아도본비〉의 내용인데, 여기에 흥법과 관련된 주요한 정보가 나온다.(밑줄은 필자가 강조를 위해 그은 것이다. 이하에서도 마찬가지다.)

대해서도 "법사를 존경했기 때문이다"(尊法師故也)라고 했다. 왕의 의지나 정치적 의도는 아주 약화되어 있고 불교의 뛰어남이 일방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24) 『三國史記』 권25, 〈阿莘王〉. "阿莘王[或云阿芳.], 枕流王之元子. 初生於漢城別宮, 神光炤夜. 及壯, 志氣豪邁, 好鷹馬. 王薨時年少, 故叔父辰斯繼位, 八年薨, 卽位."

그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성국공주가 병이 들었는데, 무의로도 효험이 없자 사방으로 사람을 보내 의원을 구하게 했다. 스님이 얼른 대궐로 들어갔고, 마침내 그 병을 다스렸다. 왕이 아주 기뻐하며 바라는 바를 물으니, 스님이 대답했다. "빈도는 전혀 바라는 게 없습니다. 다만 천경림에 사찰을 세워서 불교를 크게 일으켜 국가의 복을 빌고 싶습니다."

왕이 허락하고 공사를 일으키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그때 풍속은 꾸밈이 없고 수수해서 띠를 엮어 집을 얽었다. 스님은 그곳에 머물며 강연했는데, 가끔 하늘 꽃이 땅에 떨어졌다. 그곳을 흥륜사라 불렀다.

모록의 누이는 이름이 사씨인데, 스님께 귀의해 비구니가 되었고 또한 삼천기에 절을 지어 살았다. 절 이름은 영흥사다. 얼마 뒤 미추왕이 세상을 떠나니, 도성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 했다. 스님은 모록의 집으로 돌아와 스스로 무덤을 만들고는 문을 닫고 자취를 끊었는데, 끝내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불교 또한 사라졌다. 23대 법흥왕이 소량 천감 13년 갑오년(514)에 즉위하자 곧 석씨의 가르침을 일으켰다.[25]

〈아도본비〉는 아도의 모친 고도녕이 3천여 달이 지나면 신라에서 불교가 크게 일어날 것이라는 말을 하는 데서 시작된다. 위의 글은 아도가 모친의 말을 듣고 신라에 와서 미추왕에게 불교를 펼 수 있게 해달라고 청했다가 거절당하고 나서 3년이 지난 뒤에 일어난 일이다. 아도는 성국공주의 병을 치유해 준 덕분에 "불법을 크게 일으킬"(大興佛教)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띠집을 엮어 절을 세우고 강연을 했으나, 미추왕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도의 바람은 무산되었다. 불법을 잘 알고 강연할 수 있는 능력은 아도에게 있었으나, 절을 짓고 불법을 일으키는 일은 왕의 의지와 지지가 있어야만 했음이 잘 드러난다. 왕이 죽자 아도가 자취를 감춘 것도 지지해 줄 왕의 부재 때문이었다. 위의 글에서 "이로 말미암아 불교 또한 사라졌다"(因此大教亦廢)는 구절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그리고 이어 법흥왕이 "석씨의 가르침을 일으켰다"(興釋氏)고 했다.

〈아도기라〉는 아도가 흥법을 간절하게 바랐음에도 결국 실패한 사실을

25) 『三國遺事』 권3, 〈阿道基羅〉. "三年時, 成國公主疾, 巫醫不效, 勅使四方求醫. 師率然赴闕, 其疾遂理. 王大悅, 問其所須, 對曰: '貧道百無所求. 但願創佛寺於天鏡林, 大興佛教, 奉福邦家爾.' 王許之, 命興工. 俗方質儉, 編茅葺屋. 住而講演, 時或天花落地. 號興輪寺. 毛祿之妹名史氏, 投師爲尼. 亦於三川歧創寺而居, 名永興寺. 未幾, 未雛王卽世, 國人將害之. 師還毛祿家, 自作塚, 閉戶自絶, 遂不復現. 因此大教亦廢. 至二十三法興大王, 以蕭梁天監十三年甲午登位, 乃興釋氏."

서술하고 있다. 이는 고승의 능력과 의지만으로는 흥법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일연이 찬시에서 "눈 쌓인 금교는 얼어 풀리지 않았고, 계림의 봄빛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26]라고 노래한 데서도 그 점이 잘 드러나 있다. 〈원종흥법염촉멸신〉이 그 뒤를 이은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런데 〈원종흥법염촉멸신〉에서는 「신라본기」의 관련 내용을 "법흥대왕 즉위 14년(527)에 소신 이차돈이 불법을 위해 몸을 던졌다"[27]라고 간략하게 처리해버렸고, 염촉을 기린 〈촉향분예불결사문〉을 인용해 주요 서사로 삼았다. 이 결사문의 서두에 흥미로운 대목들이 나온다.

> 옛날 법흥대왕이 자극전에서 다스릴 때 부상(扶桑, 신라) 지역을 굽어 살펴보고는 "옛날 한나라 명제가 꿈에 느낌을 받아 불법이 동쪽으로 흘렀는데, 과인은 즉위한 뒤로 창생을 위해 복을 닦고 죄를 없앨 곳을 만들려는 바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때 조정의 신하들은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로지 나라를 다스리는 대의만 좇을 뿐, 절을 세우겠다는 거룩한 방략은 따르지 않았다.
>
> 대왕은 탄식하며 말했다. "아아! 과인은 덕이 없으면서도 대업을 받들어 이었으나, 위로는 음양의 조화를 이지러뜨리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 정무를 보는 여가에 마음을 불도에 두었지만, 누가 나와 함께할 것인가?"[28]

위에서 법흥왕은 후한(後漢) 명제(明帝, 57~75 재위)가 꿈을 꾼 뒤에 불법을 받아들인 일을 거론하면서 자신도 그렇게 할 뜻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삼국사기』의 〈법흥왕〉 '15년조'에도 법흥왕과 이차돈이 불법을 일으키기 위해 한 일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위의 긴 내용이 "이때에 법흥왕 또한 불교를 일으키려 했으나, 신하들이 믿지 않고 이러쿵저러쿵 시비를 점점 더하므로 왕은 난감해졌다"[29]라는 한 문장으로 처리되어 있을

---

26) 『三國遺事』 권3, 〈阿道基羅〉. "雪擁金橋凍不開, 雞林春色未全廻."

27) 여기에서는 법흥왕 14년의 일로 서술하고 있으나,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4의 〈법흥왕〉에서는 15년의 일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두 저자의 기년(紀年) 표기가 다른 데서 비롯된 일이다.

28) 『三國遺事』 권3, 〈原宗興法厭髑滅身〉. "昔在法興大王垂拱紫極之殿, 俯察扶桑之域, 以謂'昔漢明感夢, 佛法東流; 寡人自登位, 願爲蒼生欲造修福滅罪之處.' 於是, 朝臣未測深意, 唯邊理國之大義, 不從建寺之神略. 大王嘆曰: '於戲! 寡人以不德丕承大業, 上虧陰陽之造化, 下無黎庶之歡. 萬機之暇, 留心釋風, 誰與爲伴?'"

29)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 제4, 〈法興王〉. "至是, 王亦欲興佛教, 羣臣不信, 喋喋騰口舌, 王難之."

뿐 아니라 위에서 법흥왕이 한 말도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후한 명제의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후한 명제가 불법을 받아들인 일을 실제로 법흥왕이 거론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으며, 중요하지도 않다. 여기서는 그 내용이 없는 「신라본기」의 기사를 배제하고 〈촉향분예불결사문〉을 선택해 실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명제의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다.[30] 명제가 꿈에서 본 금인(金人)이 부처라는 말을 듣고 사신들을 서쪽으로 보냈는데, 사신들이 『사십이장경(四十二章經)』이라는 경전을 가지고 승려들과 함께 돌아왔다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에서 '흥법'의 주체는 황제인 명제다. 법흥왕도 그런 명제를 본받고 싶었으나, 상황이 달랐다. 바로 그때 염촉이 그 뜻을 알아채고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이다.

〈원종흥법염촉멸신〉의 서사에는 고승이 등장하지 않는다. 제왕인 법흥왕의 의지와 신하 염촉의 죽음을 통해 흥법이 완성되었다. 물론, 흥법의 시작은 〈아도기라〉의 아도였다. 결사문에서 염촉의 죽음에 이어 "이야말로 임금의 신심을 붙들어주고 아도의 본심을 이룬 것이니 (…) 이 어찌 세 성인이 위덕으로 이룬 것 아니리오!"라고 한 것과 세 성인에 대해 일연이 "아도와 법흥, 염촉을 이른다"고 주석을 단 데서[31]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이는 흥법의 주체가 고승과 제왕이었음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고승의 전법(傳法)에서 시작해 제왕의 공인과 지지로 흥법(興法)이 완성된다는 것이다.

고승과 제왕의 합작으로 흥법이 완성된다는 사실은 〈보장봉로보덕이암〉을 통해서 다시 확인된다. 〈보장봉로보덕이암〉에서는 보장왕이 도교를 일으키려 하자 신하인 개소문(蓋蘇文)이 적극 권유하여 도교를 일으켰고, 이에 대해 보덕이 간언했으나 듣지 않았다가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 주요 서사다. 제왕과 신하의 역할이 〈원종흥법염촉멸신〉과는 상반되지만, 흥법과 관련해서는

30) 이 이야기는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뒤로 가장 먼저 한역된 것으로 알려진 『사십이장경(四十二章經)』의 서두에 나온다.(고려대장경 K19-0865, 대정신수대장경 T17-0722) 더 자세한 내용은 케네스 첸 저, 박해당 역, 『중국불교 상』, 민족사, 1991, 42-43면; 에릭 쥐르허 저, 최연식 역, 『불교의 중국정복』, 씨아이알, 2010, 41-42면 참조.

31) 『三國遺事』 권3, 〈原宗興法厭髑滅身〉. "此乃扶丹墀之信力, 成阿道之本心, (…) 豈非三聖威之所致也! [謂我道・法興・厭髑也.]"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아도기라〉와도 일맥상통한다. 불법을 일으키려던 아도의 의지가 아무리 강렬했더라도 제왕의 뒷받침 없이는 실현될 수 없었던 것처럼, 보덕이 아무리 뛰어난 승려였고 그 뜻이 간절했더라도 제왕과 그 신하가 호응하거나 지지해 주지 않으면 불법의 흥성을 기대할 수 없을 뿐더러 도리어 쇠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흥법의 주체는 고승과 제왕이다. 흥법에서 고승은 필요조건이고, 제왕은 충분조건이다. 이로써 보면, 흥법은 단순히 전법(傳法)으로 해석될 수 없다. "불법을 전하는 일"은 오로지 고승이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흥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순도조려〉, 〈난타벽제〉, 〈아도기라〉를 통해 입증되는 사실이다. 흥법은 그 전법에 제왕의 적극적인 인가와 지지가 더해짐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이다. 따라서 흥법은 문자적으로는 "불법을 일으키는 일"을 뜻하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고승과 제왕의 합작으로 불법을 일으키고 융성을 이어가는 일"이다.

4. 「흥법」편의 구성적 의미

「흥법」편의 서사들은 삼국에서 불교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준다. 이 점은 바로 앞의 「기이」편이 세속의 정치사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과 대비되면서 「흥법」이 「탑상」 이하의 편목들과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흥법」을 「탑상」과 함께 고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32]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흥법」의 글쓰기는 승전을 지향한 것이 아니었으며, 고승을 중심으로 한 것도 아니었다. 흥법의 주체로서 고승의 역할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대체로 고승과 제왕의 역할이 대등했다고 볼 수 있으나, 어떤 면에서는 제왕의 역할이 훨씬 더 컸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런 특성들은 「흥법」을 단순히 불교사만을 서술한 편목으로 볼 수 없게 하며, 「탑상」 이하의 편목들과 묶어서 이해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삼국유사』의 전체 구성에서 「흥법」편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삼국유사』는 복합적인 텍스트로서 고승전의 성격도 갖고 있다. 이는 「의해」와

32) 이강엽, 앞의 글과 고영섭, 앞의 글이 대표적인 경우다.

「감통」이 중국에서 마련된 고승전(高僧傳)의 십과(十科) 체재에 이미 있던 것들이라는 사실에서 확인된다.[33] 「의해」는 십과 체재의 전범을 마련한 혜교의 『고승전』에서부터 보인다. 그리고 「감통」은 『고승전』의 「신이(神異)」가 『속고승전』에서 그 명칭이 바뀐 것이다.[34]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승전』을 비롯한 중국의 고승전에서 '의해'는 늘 '역경(譯經)' 다음에 배치되었다는 사실이다.

'역경'은 "불경을 한역(漢譯)하는 데 힘쓴 고승들"을 입전한 과목이다. 역경의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혜교는 그 의의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 불법이 동쪽 땅으로 흘러든 것은 대개 연이어 번역한 공훈에 말미암았다. 어떤 이는 사막과 산들을 넘어 건너왔고, 어떤 이는 커다란 파도를 타고 떠왔으니, 모두 불도를 따르느라 제 몸을 잊고 불법을 널리 펴느라 목숨을 버린 것이다. 진단(중국)은 오로지 이에 힘입어 밝게 열렸으니, 이 공덕은 숭상할 만하다. 그런 까닭에 책의 첫머리에 두었다.[35]

혜교가 십과 가운데 「역경」을 첫머리에 둔 까닭을 서술한 부분이다. 종교가 처음 발생할 때 교조와 교리가 핵심이라고 본다면, 교조 사후에 그 종교를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교리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 위의 글에서도 드러나듯이, 중국에 불교를 전하려던 이들은 먼저 경전을 갖고 와서 전했다. 경전은 교조의 또 다른 몸이고, 거기에 담긴 교리는 교조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경의 전래와 그 번역은 바로 불교의 핵심을 전하는 일이며 불법의 시작을 알리는 일이기도 했다.[36] 다시 말해서, 중국 고승전에서는 불경을

---

33) 혜교에서 마련된 고승전의 십과 체재는 역경(譯經), 의해(義解), 신이(神異), 습선(習禪), 명률(明律), 망신(亡身), 송경(誦經), 흥복(興福), 경사(經師), 창도(唱導) 등인데, 몇몇 과목에서 약간의 변화는 있었으나 대체로 기본 틀은 유지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정천구, 앞의 글, 참조.

34) 「신이」에서 「감통」으로 과목의 명칭이 바뀐 데 대해서는 정천구, 「붓다의 신통에서 고승의 신이로」, 『대순사상논총』 39, 대순사상학술원, 2021, 230-241면 참조.

35) 『高僧傳』 권14, 「序錄」. "然法流東土, 蓋由傳譯之勳. 或踰越沙險, 或泛漾洪波, 皆忘形殉道, 委命弘法. 震旦開明, 一焉是賴, 茲德可崇. 故列之篇首."

36) 『고승전』의 「역경」편 이야기들을 보면, 경전의 실체는 두 가지였다. 문자로 기록된 형태의 경전과 고승들이 암송하고 있던 경전이 그것이다. 〈순도조려〉에서 순도는 불상과 함께 경문을 가지고 온 것으로 되어 있으며, 〈난타벽제〉에서는 마라난타만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두 가지 경전이 온 셈이다.

가져와서 번역한 고승들이 중국의 흥법을 이룬 주체라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고승전에는 「역경」이 있지만, 한국이나 일본의 고승전에는 이 과목이 없다. 각훈(覺訓)의 『해동고승전』에서 그 이유를 밝혀 두었다. "도는 스스로 널리 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널리 퍼진다. 그러므로 '유통(流通)'편을 지어 뒷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옛날의 양·당·송 세 고승전에는 모두 「역경」을 두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번역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 과목을 두지 않는다."37)

각훈은 「유통」편을 두면서 『삼국유사』의 「흥법」에서 다룬 인물들을 망라했을 뿐만 아니라 더 확장했다. 현재 전하는 『해동고승전』은 권1과 권2로, 둘 다 「유통」이다. 여기에는 순도와 마라난타, 아도 등을 비롯해 각덕, 명관, 원광, 안함, 현각, 현유 등 더 많은 고승들의 전기가 실려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법공(法空)과 법운(法雲)의 전기다. 『해동고승전』의 「유통」과 『삼국유사』의 「흥법」이 어떻게 다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법공은 법흥왕의 법명이고, 법운은 진흥왕의 법명이다. 법명은 각자 제왕으로서 할 일을 다한 뒤에 출가하면서 받은 것이다. 그래서 법공과 법운의 전기에는 두 인물이 세속의 제왕으로서 이룬 일들과 불법의 유통에 기여한 바가 서술되어 있다. 그럼에도 굳이 법명을 내세운 것은 두 제왕을 승려로서 다루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유통」이 승전을 지향한 저술, 곧 고승전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법명을 앞세우고 다른 고승들과 동렬에 둠으로써 정치적 의미는 약화되고 종교적 의미가 한층 강화되었다. 이는 곧 전법이나 흥법 따위 불교적 사건을 오로지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보았음을 의미한다. 과연, 이런 관점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일까? 적어도 일연은 그렇지 않다고 보았다.

「흥법」편에서는 고승전이 아니라 기전체 역사서의 본기를 중시했다. 이것으로도 종교적 관점, 곧 불교 중심의 인식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시각에서 벗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불교를 중시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원종

37) 『海東高僧傳』 권1, 「流通」. "道不自弘, 弘之由人. 故著流通篇, 以示于後. 按古梁唐宋三高僧傳, 皆有譯經, 以我本朝, 無翻譯之事, 故不存此科也."

흥법염촉멸신〉에서 인용한 〈촉향분예불결사문〉에는 서두에 "조정의 신하들은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로지 나라를 다스리는 대의만 좇을 뿐, 절을 세우겠다는 거룩한 방략은 따르지 않았다"는 대목이 나온다. 여기서 "나라를 다스리는 대의"는 정치 철학인 유교를 가리키며, 거룩한 방략은 불교를 통한 정치라 할 수 있다. 유교는 본래 정치 철학이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만하다.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

> 대왕은 탄식하며 말했다. "아아! 과인은 덕이 없으면서도 대업을 받들어 이었으나, 위로는 음양의 조화를 이지러뜨리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 정무를 보는 여가에 마음을 불도에 두었지만, 누가 나와 함께할 것인가?"[38]

신하들의 반대에 부닥친 법흥왕이 탄식하며 한 말이다. 정치 철학으로서 유교가 있음에도 불교를 굳이 받아들이려 한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다. 첫째는 음양의 조화를 위해서고, 둘째는 백성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다. 음양의 조화가 이지러졌다는 말은 유교가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뜻이다. 유교의 일방적 우위는 곧 두 번째 이유와 관련된다. 유교는 예교로써 정치를 펴는데, 그 예교는 남녀의 구별과 상하의 차별을 바탕으로 한다. 이는 지배층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이 때문에 하층 민중, 곧 백성은 기쁘지 않은 것이다. 법흥왕은 바로 그러한 부조화와 차별을 불교로써 보완하고자 했던 것이다. "정무를 보는 여가에 마음을 불도에 두었다"고 한 데에 그런 바람과 의지가 잘 드러나 있다. 일연 또한 이를 잘 인식하고 있었기에 다음과 같은 찬시를 썼다.

> 거룩한 지혜는 예부터 만세의 꾀요
> 구구한 여론은 가을날 터럭같은 것.
> 법륜이 풀려 금륜을 좇아 구르니
> 순일은 비로소 불일로써 높아지네.[39]

---

38) 『三國遺事』 권3, 〈原宗興法厭髑滅身〉. "大王嘆曰: '於戲! 寡人以不德丕承大業, 上虧陰陽之造化, 下無黎庶之歡. 萬機之暇, 留心釋風, 誰與爲伴?'"

39) 『三國遺事』 권3, 〈原宗興法厭髑滅身〉. "聖智從來萬世謀, 區區輿議謾秋毫. 法輪解逐金輪轉, 舜日方將佛日高."

법륜(法輪)은 불교를, 금륜(金輪)은 유교를 각기 가리킨다. 법륜은 금륜을 좇아 구른다고 했으니, 이는 유교를 바탕으로 한다는 뜻이다. 고승의 전법이 제왕의 의지를 따라 흥법으로 이어진 사실을 가리킨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순일(舜日)은 유교의 성군인 순(舜)으로써 유교를 가리킨 것이고, 불일(佛日)은 붓다로써 불교를 가리킨 것이다. 법륜이 금륜을 좇아 구른다고 하더니, 이제 순일이 불일 덕분에 높아진다고 했다. 흥법 과정에서는 유교 정치의 수장인 제왕의 역할이 컸으나, 흥법 이후에는 불교 덕분에 유교 정치가 조화롭게 이루어졌다는 뜻이다.[40]

이로써 보면, 「흥법」은 고승과 제왕의 협력, 유교와 불교의 조화를 중시한 편목이다. 이는 일연이 「흥법」편을 통해 주장하는 바이지만, 실제로 삼국의 유교와 불교가 상호보완하면서 각각 세간의 정치와 출세간의 종교로서 구실한 역사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삼국사기』와 같은 유교의 역사서들에서는 불교사와 불교문화를 아주 소략하게 기술하는 데서 그쳤다.[41] 『삼국사기』만 보면, 신라가 불교 국가였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에 『해동고승전』과 같은 고승전에서는 세속의 정치가 거의 배제되거나 불교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거론되는 데서 그쳤다. 이 둘은 유교와 불교가 공존했던 역사적 사실, 정치사와 종교사가 서로 뒤얽혀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간과하거나 외면했다. 「흥법」은 바로 그런 관점이나 편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전체 구성에서도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다.

흥법은 결국 고승과 제왕, 유교와 불교가 '대등하게' 이루어낸 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흥법을 불교적 사건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정치사이면서 불교사다. 「흥법」편이 「기이」와 「탑상」 사이에 배치된 이유도

40) 고운기는 법흥왕이 재위 7년에 율령을 반포한 일을 들면서 "법흥왕의 '법'은 율령을 가리키는 것이자 왕15년에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한 데서도 비롯한다"(고운기, 「일연의 균형으로서 글쓰기—삼국유사 서술방법 연구 1」, 『열상고전연구』 30, 열상고전연구회, 2009, 51면)고 했는데, 이 또한 일연이 말하고자 한 바와 일치되는 견해로 볼 수 있다.

41) 이는 중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불교가 전래된 한대(漢代) 이후의 역사서들에서 불교와 관련된 사실들은 거의 배제되었고, 열전에도 고승들의 전기는 거의 없었다. 『삼국사기』 또한 이런 전례를 그대로 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유교 역사서들에서 불교사를 배제한 탓에 고승전을 비롯한 불교사서들이 풍부하게 저술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여기에 있다. 『삼국유사』에서 맨 앞에 놓인 「왕력」과 함께 「기이」는 제왕 중심의 정치사를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오롯이 불교문화사를 보여주는 「탑상」을 필두로 고승의 전기라 할 수 있는 「의해」, 「신주」 등은 모두 불교사를 서술한 것이다. 「흥법」이 그 둘 사이, 곧 「기이」와 「탑상」 사이에 배치된 것은 유교의 정치사와 불교의 종교사는 별도로 존재하면서 따로 전개된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뒤얽혀서 전개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이것은 일연의 의도이면서 실제 역사이기도 하다.

5. 맺음말

중세는 보편종교의 시대였고, 동아시아에서는 불교가 보편종교로서 정치와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방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렇다고 해서 오로지 불교만을 중심에 놓을 수는 없다. 불교보다 더 일찍 그 모든 방면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이 유교였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면,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유교가 먼저 사상이나 문화에서 자리를 잡았고, 나중에야 불교가 비집고 들어왔다. 이는 불교의 수용이나 융성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뜻이며, 제왕을 비롯해 유교적 관료들에 의해 용인되어야만 가능했다는 뜻이다. 〈원종흥법염촉멸신〉의 이야기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럼에도 역사서 저술에서는 저자의 입장에 따라 그 편향이 매우 심했다. 『삼국사기』와 『해동고승전』에서도 그런 편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일연은 『삼국유사』를 저술하면서 그런 편향을 시정하려는 의도에서 복합적인 구성과 독특한 글쓰기를 시도했다.

『삼국유사』의 구성은 외형상 세간의 정치사를 보여주는 「왕력」과 「기이」가 한 묶음, 출세간의 불교사를 보여주는 「흥법」 이하가 한 묶음을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하여 크게 둘로 나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편목들 가운데 전례가 없는 것들이 있고 또 편목들이나 조목들을 하나로 꿰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각 편목의 글쓰기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구성적 특성을 밝힐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특히 「흥법」에 주목해서 글쓰기를 분석하고 숨은 의미를 밝혔다.

「흥법」은 불교의 공인과 성쇠에 관련된 주요 사건들을 다루고 있으므로 각 조목들이 승전을 지향하는 듯이 여겨질 수 있다. 그런데 글쓰기의 형식과 내용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기전체 역사서인 『삼국사기』의 본기를 주요한 전거로 삼았으며, 내용에서도 고승의 역할을 일방적으로 강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흥법에서 제왕의 역할을 더욱 부각시켰다.

「흥법」의 고승들이 불법을 전한 일, 곧 전법(傳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법이 곧 흥법은 아니었다. 흥법에서는 제왕의 역할이 결정적이라 할 만큼 매우 컸다. 고승이 흥법의 필요조건이었다면, 제왕은 충분조건이었던 셈이다. 이는 고승과 제왕이 흥법에서 대등한 역할을 한 존재였음을 의미하며, 나아가 흥법은 불교사이면서 정치사라는 이중성을 갖는 사건이었음을 의미한다.

「흥법」의 이런 특성은 『삼국유사』 전체에서 그 배치가 갖는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준다. 『삼국유사』는 「왕력」과 「기이」를 앞세워 세속의 정치사를 먼저 서술했다. 그리고 「탑상」으로는 불탑과 불상 등의 사물을 통해, 「의해」 이하에서는 고승들을 비롯해 인물을 중심으로 불교사의 기원과 전개를 보여주었다. 크게 보면, 「흥법」을 두고 그 앞에는 정치사가, 그 뒤에는 불교사가 서술된 셈이다. 이 가운데서 「흥법」은 그 둘이 얽혀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둘을 이어주는 가교 구실을 하고 있다.

요컨대, 「흥법」은 『삼국유사』가 정치사와 종교사를 각각 대충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짜임새 있게 구성하고 일관된 글쓰기를 함으로써 유교와 불교가, 세간의 제왕과 출세간의 고승이 둘이 아님을, 서로 대등하게 화합하면서 '흥법'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일으켰음을 보여준다. 그것이 실제 역사였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으나, 중세의 유교사서와 불교사서들에서 쉽게 간과되거나 곡해되었던 사실이다. 그런 사서들에 대해 일연은 대등의 논리를 구현한 글쓰기와 구성으로써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 참고문헌

강인구 외,『譯註 三國遺事 Ⅲ』, 이회문화사, 2003.
金富軾,『三國史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장휘옥,『海東高僧傳』, 민족사, 1994.
慧 皎,『高僧傳』, 고려대장경 32-764.
道 宣,『續高僧傳』, 고려대장경 32-908.
諸橋轍次,『大漢和辭典』, 東京: 大修館書店, 1971.

고영섭,「『삼국유사』 흥법과 탑상의 성격과 특징」,『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35,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14.
고운기,「일연의 균형으로서 글쓰기—삼국유사 서술방법 연구 1」,『열상고전연구』30, 열상고전연구회, 2009.
고익진,「三國遺事撰述考」,『한국찬술불서의 연구』, 민족사, 1987.
김두진,「三國遺事의 體制와 내용」,『한국학논총』23,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00.
김영태,「三國遺事 興法편의 三國傳法史實 考」,『불교학보』29,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1992.
이강엽,「『삼국유사』 興法·塔像 編의 탈신화화 전략」,『어문학』110, 한국어문학회, 2010.
정천구,「붓다의 신통에서 고승의 신이로」,『대순사상논총』39, 대순사상학술원, 2021.
_____,「중국 고승전의 체재 변화와 그 의미」,『대순사상논총』43, 대순사상학술원, 2022.

에릭 쥐르허 저, 최연식 역,『불교의 중국정복』, 씨아이알, 2010.
케네스 첸 저, 박해당 역,『중국불교 상』, 민족사, 1991.

【Abstract】

A Study on the deployment and its meaning of Heungbeop(興法) in *Samguk Yusa*

Jung, Chunkoo*

Samguk yusa has a complex character in the composition of chapters, and the key link to understand the complexity is Heungbeop(興法) which means the promoting Buddhism. Heungbeop can be summarized as describing the occurrence of Buddhsim in the Three Kingdoms(三國), but the meaning of Heungbeop is not simple. In particular, it is very important to see why Heungbeop was placed between Gii(紀異) and Tapsang(塔像) with regard to the overall composition of *Samguk yusa*. In this study, I analyzed the writing of Heungbeop and reveal who promote the Buddhism and what its meaning is, and further discussed the compositional meaning of Heungbeop in *Samguk yusa*, which is exepcted to find a clue to identify the whole character of *Samguk yusa*.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writings of the six stories in Heungbeop, the main character of the narrative is not the eminent monks but the king. This shows that Heungbeop is not biographies of the eminent monks at all. In fact, the eminent monks just transmitted Buddhism, which is a necessary condition of the promoting Buddhism. And the promoting Buddhism was completed by the king played an equal role with the eminent monks, which means that Heungbeop is not just a Buddhist history but also a political history.

The writing of Heungbeop encompasses religious history and political history by showing that the eminent monks and the king, Buddhism and Confucianism played an equal role in the promoting Buddhism, which was the reason why it was placed between Gii and Tapsang. In other words, it serves as a bridge between them. Through this, Ilyeon(一然) tried to say that political history and religious history are not separate from each other, and that they are intertwined with each other. Even though it was a real history, Confucian historiography excluded most of the Buddhist history and Buddhist historians described only the Buddhist history centered on the eminent monks. In order to correct such distortions and biases, Heungbeop was placed between Gii and Tapsang.

Keywords: the promoting Buddhism, transmitting Buddhism, writing, composition, eminent monk, king, equivalence.

접수일: 2023.06.30. ‖ 심사일: 2023.07.12. ‖ 게재확정일: 2023.08.20.

* Lecturer, Dept. of Korean Literature in Chinese Characters, Pusan National Univ.